

崔允甲 著

韩国语语法新讲



한국어 문법 신강

◎ 조선어·한국어 영역의 정상급
학자 최윤갑 노교수의 섬없는
교수 실천과 탐구의 결실!



홍릉강 출판사
조선민족

崔允甲 著

韩国语语法新讲



한국어 문법 신강

◎ 조선어·한국어 영역의 정상급
학자 최윤갑 노교수의 씬없는
교수 실천과 탐구의 결실!



홍릉강
조선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语法新讲 / 崔允甲著.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5

ISBN 978-7-5389-1601-0

I. 韩… II. 崔… III. 朝鲜语—语法 IV. H55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70658 号

书 名/ 韩国语语法新讲

著 者/ 崔允甲

责任编辑/ 李英玉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李光吉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16. 25

字 数/ 200 千字

版 次/ 2009 年 9 月第 1 版

印 次/ 2009 年 9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601-0 (民文)

定 价/ 30. 00 元

머리말

퇴직 후 한국어 학부의 청탁에 의하여 한족 석사연구생들에게 한국어 문법 강의를 하면서 한족 학생들에게 하는 한국어 문법 강의는 한국어 문형 즉 한국어 말투가 한족 학생들의 머릿속 깊이 박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어 문형을 이루는 동사 형용사 연구에 착수하였다.

오랫동안의 사색 끝에 한국어 문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자리 값에 따라 동사, 형용사를 분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이 분류들을 완성하였다.

이에 힘을 얻어 의지 동사와 무의지 동사의 분류, 동태 동사와 정태 동사의 분류, 순간 동사와 지속 동사의 분류, 심리 형용사와 일반 형용사의 분류를 완성하였다. 이어서 명사에서든 불구 명사, 동명사, 한자어 의존명사의 분류를 새로 하였다.

이렇게 한국어에서의 큰 품사들인 동사, 형용사, 명사의 새 분류를 완성하게 되자 2000 년에 펴낸 필자의 줄거 《한국어 문법》의 속편으로 《한국어 문법 신강》을 펴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로 한국어 동사의 문법적 범주(서법, 동작상, 시제)를 쓰고 한국어 문형의 전환, 부사의 작용 영역 등 통사론에 관한 문장 몇 편을 썼다.

이러는 사이 어느덧 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필자도 80 고개에 들어섰다.

2 한국어 문법 신강

금년은 연변대학 창립 60 주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는 자신을 키워준 모교 - 연변대학 창립 60주년에 이 책을 드릴수 있게 된데 대하여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이 책이 한국어(조선어)를 학습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으로 생각하겠다.

2009년 1월 15일

저자

차 례

제1장 동사의 새 분류

제1절 자리 값에 따른 동사의 분류/1

1. 한 자리 동사와 그 분류/3

1) 의지 동사/4

2) 무의지 동사/6

2. 두 자리 동사와 그 분류/9

1) 단격 지배 동사/10

2) 격호용 동사/34

3) 교차 동사/47

4) 단 복문 전환 동사/48

3. 세 자리 동사와 그 분류/53

1) 단격 지배 동사/53

2) 격호용 동사/60

3) 교차 동사/64

4) 단 복문 전환 동사/64

4. 약지배 동사/67

1) 한 자리 동사의 약지배 현상/69

2) 두 자리 동사의 약지배 현상/74

제2절 의지법 유무에 따른 동사의 분류/75

1. 의지 동사와 무의지 동사의 구별/75

2 한국어 문법 신강

2. 무의지 동사/77

- 1) 동사의 행동주가 무정 명사로 되는 동사/77
- 2) 접미사 ‘되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동사/80
- 3) 정태 동사/83
- 4) 무심중에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86
- 5) 부사 ‘못’과 보조 동사 ‘못하다’와의 결합 불가능/88
- 6) 피동성을 가졌거나 피동형을 가진 동사/89

제3절 동태성 유무에 따른 동사의 분류/92

1. 동태 동사와 정태 동사/92

- 1) 동태 동사/92
- 2) 정태 동사/94

2. 심리 동사/98

3. 순간 동사와 지속 동사/101

- 1) 순간 동사와 지속 동사의 구별/101
- 2) 순간 동사의 분류/105

4. 정태 동사의 분류/111

- 1) 존재 동사/111
- 2) 관계 동사/113
- 3) 상태 동사/116

제2장 형용사의 새 분류

제1절 자리 값에 따른 형용사의 분류/119

1. 한 자리 형용사/120

- 1) 성질 형용사/121
- 2) 상태 형용사/121
- 3) 시간 형용사/122
- 4) 감각 형용사/122
- 5) 지시 형용사/124

2. 두 자리 형용사/125

- 1) 단격 지배 형용사/125
- 2) 격호용 형용사/129
- 3) 교차 형용사/131
- 4) 단 복문 전환 형용사/132
- 제2절 심리 형용사/133
 1. 심리 형용사와 일반 형용사/133
 2. 심리 형용사의 종류/139
 - 1) 감정 심리 형용사/139
 - 2) 감각 심리 형용사/141

제3장 용언의 문법적 범주

- 제1절 서법(语气, mood)/143
 1. 대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서법/143
 - 1) 서술법/144
 - 2) 의문법/144
 - 3) 약속법/144
 - 4) 명령법/145
 - 5) 청유법/145
 2. 이야기되는 사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서법/145
 - 1) 판단법/146
 - 2) 의심법/147
 - 3) 의지법/147
- 제2절 동작상(体, aspect)/148
 1. 지속상/148
 2. 반복상/149
- 제3절 시제/150
 1. 시제의 개념/150
 2. 절대적 시제/151

4 한국어 문법 신강

- 1) 현재/151
- 2) 과거/153
- 3) 과거 회상/155
- 4) 미래/156
3. 상대적 시제/158
 - 1) 관형절의 시제/158
 - 2) 명사절, 인용절, 종속절(종속적 연결 서술어)의 시제/160

제4장 명사의 새 분류

제1절 불구 명사/163

1. 관형어로만 쓰이는 명사/164
2. 부사어로만 쓰이는 명사/166
3. 관형어로도 부사어로도 쓰이는 명사/167
4. 관형어로도 부사어로도 서술어로도 쓰이는 명사/168

제2절 동명사/169

1. 동명사의 특성/169
2. 동명사의 형성/171
 - 1) 한자어에서 ‘하다, 되다’를 동사로 될 수 있는 명사이면 동명사로 될 수 있다/171
 - 2) 고유 한국어에서 ‘하다’가 붙어 동사로 될 수 있는 명사가 극소수로 동명사로 될 수 있다/173

제3절 한자어 의존 명사/175

제5장 통사론

제1절 한국어 문형의 전환/179

1. 단문에서의 전환/180
 - 1) 용언 서술문이 체언 서술문으로의 전환/180
 - 2) 서술문이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의 전환/182
 - 3) 주제화/183

- 4) 교차 용언에 의한 문형의 전환/184
- 5) 부사어의 이동에 의한 문형의 전환/185
2. 단문과 복문의 호상 전환/186
 - 1) 단문의 복문으로의 전환/186
 - 2) 복문의 단문으로의 전환/189
 - 3) 복문에서의 전환/190

제2절 복문 종속절의 종속성/195

1. 복문과 종속절/195
2. 종속절의 종속성/197
 - 1) 부분적 종속절은 따로 주어를 가지지 못하고 주절의 주어를 주어로 하고 있다/197
 - 2) 절대 대부분의 종속절은 주절과 다른 주어를 가질 경우 그 주어는 보조사 ‘는/은’으로 표시되지 않고 주격 조사 ‘가/이’로 표시 된다/198
 - 3) 종속절은 주절 속에 끼일 수 있다/201
 - 4) 종속절의 시제는 상대적 시제이다/202
 - 5) 종속절의 연결 어미에는 시제 ‘았, 겠’과 결합되지 못하는 연결 어미가 적지 않다/203
 - 6) 주절이 약속문, 청유문, 명령문일 경우 다음의 종속 연결 어미들을 가진 종속절은 오지 않는다/204

제3절 부사의 작용 영역/205

1. 순행 수식/206
2. 역행 한정/210

제4절 문장 성분/216

1. 이중 주어/216
2. 이중 목적어/219
3. 보어/220
4. 주어, 목적어, 보어의 의미/223

6 한국어 문법 신강

- 1) 주어의 의미/223
- 2) 목적어의 의미/224
- 3) 보어의 의미/225

[부록]

- 한국어에서의 상용 조사 · 어미 선정과 표준화/233
- 주요 참고 문헌/249

제1장 동사의 새 분류

한국의 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어의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 사동사와 피동사 그리고 보조 동사 등으로 분류하여 왔다. 최현배 선생은 1934년에 출판된 《중등조선말본》과 1937년에 출판된 《우리말본》에서 제움직씨(자동사)와 남움직씨(타동사), 시킴움직씨(사동사)와 입음움직씨(피동사), 으뜸움직씨(주동사)와 도움움직씨(보조동사), 절움직씨(불구동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금도 분류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다른 기준에 따라 동사를 새롭게 분류하려 한다. 첫째는 자리 값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지법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태성을 나타내는가, 동태성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넷째는 순간성을 나타내는가, 지속성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제1절 자리 값에 따른 동사의 분류

동사의 자리 값(valency, 配价, 价)이란 문장의 핵심으로서의 동사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을 몇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필수 성분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지배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필수 성분을 자리 항이라 한다. 그러므로 동사의 자리 값에 따른 분류는 동사가 문장에서 필수 성분을 몇을 가지는가, 어떤 필수 성분을 가지는가 하는 분류이다.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 동사가 가지는 자리

2 한국어 문법 신강

항의 수와 종류에 따른 분류이다. 동사가 자리 항을 하나를 가지면 한 자리 동사(一价动词)로 되고 둘을 가지면 두 자리 동사로 되고 셋을 가지면 세 자리 동사로 된다. 언어에 따라 네 자리 동사, 제로 자리 동사(零价动词)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리 항의 종류에 따라 하위분류를 할 수 있다. 자리 항의 종류가 많은 한국어에서는 하위분류가 아주 필요하다. 자리 값에 따른 분류를 잘함으로써 동사문 문형을 밝힐 수 있고 동사의 유형 및 문장의 의미 구조와 문장 구조의 대응 관계를 밝히는데 토대를 닦아 놓게 되는 것이다.

자리 값에 따른 동사의 분류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문제는 동사의 문법적 다의성 문제이다. 예를 들면 동사 “넘치다”는 “가득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다”, “무엇이 정도가 넘도록 많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한 자리 동사(주어 하나만 가진 동사)로 쓰인다.(도랑물이 철철 넘치고 있다. 요즈음은 어디 가나 사람이 넘친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이나 감정이 정도가 넘도록 거세게 일어나다”의 뜻과 주로 “분수에, 분에”와 함께 쓰이어 “어떤 기준을 벗어나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부사격(에) 부사어를 가진 두 자리 동사로 쓰인다.(청년은 갑자기 활기에 넘친 표정이었다. 참으로 분에 넘치는 호사였다.) 그리고 “기준이나 목표를 넘어서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목적어를 가진 두 자리 동사로 쓰인다.(계획을 넘쳐 실행하였다.) 이런 문법적 다의성을 가진 동사들을 잘못 처리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동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문법적 단의성을 가진 동사와 문법적 다의성을 가진 동사로 동사들을 갈라서 따로따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가르지 않고 섞어 놓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뒤의 방법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문법적 다의성을 가진 동사들은 첫째 의미(첫째 의미는 보통 그 동사의 기본 의미로 된다.)에 따라 분류하고 주를 달아 다의성 동사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문장에서는 이 방법을 취하였다.

※ 문법적 다의성을 가진 단어는 ‘*’ 표를 달아 ‘넘치다*’와 같이 표기한다.

다음으로 동사의 필수 성분과 수의적 성분을 가르는 문제이다. 동사의 필수 성분이란 일반 단문에서 서술어로 되는 일정한 동사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성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미적 문법적으로 동사의 지배를 받는 필수적 성분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동사 ‘먹다’는 의미적 문법적으로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 외에 목적격 ‘를/을’을 가진 객체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필수로 한다. 때문에 언어 환경과 문맥의 도움이 없이는 생략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언어 환경이 없는 경우에 생략되면 그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된다. 그러나 수의적 성분은 언어 환경이나 문맥과는 관계없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성분이다. 다시 말하면 동사에 의존되기는 하지만 동사가 의미적 문법적으로 필수로 하는 성분이 아니다. 수의적 성분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불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 “영희는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본다.”에서 부사어 ‘도서관에서’를 빼어도 완전한 문장으로 된다. 그러나 주어 ‘영희는’과 목적어 ‘그림책을’을 빼면 의미적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으로 된다. 여기에서 수의적 성분이 내용의 구체적 표현에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수의적 성분도 동사의 지배를 받는 성분이 있다.(아래의 약지배 동사를 참고하라.)

한국어의 동사는 자리 값에 따라 한 자리 동사, 두 자리 동사, 세 자리 동사로 나누어진다.

1. 한 자리 동사와 그 분류

한 자리 동사는 문장에서 자리 항 즉 필수 성분 주어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진짜 자동사이다. 따라서 필수 성분으로서의 목적어, 부사어는 가질 수 없는 동사이다. 한 자리 동사는 주어-서술어 즉 [N이-V]의 문형을 이룬다.

4 한국어 문법 신강

- 나팔꽃이 활짝 피었다.
- 사과배가 많이도 열렸다.
- 거리의 불빛이 가물거린다.

한 자리 동사 즉 한 자리 서술어도 수의적 성분을 가질 수 있다.

- 매화꽃이 뒷산에 가득 피었다.

한 자리 동사는 우선 문법적으로 의지 동사와 무의지 동사로 나눌 수 있고 다른 기준으로 활동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눌 수 있다. 활동 동사는 의지 동사와 무의지 동사로 나누어지나 상태 동사는 모두 무의지 동사에 속하므로 의지와 무의지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상태 동사가 아닌 동사는 모두 활동 동사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태 동사를 무의지 동사에서 설명하고 활동 동사와 상태 동사의 난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다시 나누자면 문법적으로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의미적으로 나누자면 한자리 동사들의 의미적 특성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1) 의지 동사

의지 동사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의지법을 가질 수 있는 동사이다. 의지 동사는 모두 활동 동사인 데 의미적으로 심리 활동 동사와 동작 동사로 나눌 수 있다.

(1) 심리 활동 동사

심리 활동 동사는 화자의 심리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여기에는 “금욕하다, 마음 놓다, 방심하다, 안심하다” 등이 있다.

- 오신채는 금욕하는 수도승으로선 금기해야 할 음식이다.
- 그 정도라면 마음 놓아도 돼.
- 운전하는 동안에는 잠깐이라도 졸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 목사는 그 말에 다소 안심하였다.

이 동사들은 의지 동사인데 모두 “금욕 하여라, 금욕하자, 마음 놓아라, 마음 놓자, 방심 하여라, 방심하자, 안심 하여라, 안심하자”와 같이 의지법을 가질 수 있다.

(2) 동작 동사

동작 동사는 이름 그대로 동작하는 동사로서 이동 동사와 행위 동사로 나눌 수 있다.

이동 동사:

이동 동사는 어떠한 활동체가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사이다. 여기에는 “가출하다, 귀가하다, 귀향하다, 금의환향하다, 남진하다, 남하하다, 단다, 독주하다, 동분서주하다, 동진하다, 들고뛰다, 등교하다” 등 적지 않은 이동 동사들이 있다.

- 어머니는 가출만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지만 동수는 끝내 가출하고 말았다.
- 금주는 어젯밤 늦게 귀가하였다.
- 오빠는 작년 봄에 귀향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 그들은 서로 금의환향하자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 그 선수는 몇 년 동안 단거리 분야에서 독주하였다.
- 서쪽 오랑캐들이 무서운 기세로 중원을 향하여 동진하고 있었다.

행위 동사:

행위 동사는 한 점에서 활동하는 동사들로서 비이동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여기에는 “개학하다, 갱생하다, 거사하다, 고군분투하다, 고생하다, 고전하다, 곡하다, 쫓기하다, 놀다, 동부인하다” 등 적지 않은 행위 동사들이 있다.

- 각 급 학교는 긴 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학하였다.
- 그는 갱생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6 한국어 문법 신강

- 의병들은 약속한 날 먼동이 틀 무렵 거사하기로 하였다.
- 아군은 고군분투하였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다.
- 어디 가거나 한 십년 고생하면 자리를 박을 거요.

2) 무의지 동사

무의지 동사는 활동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눌 수 있다.

(1) 활동 동사

활동 동사는 심리 활동 동사, 변화 동사, 동작 동사로 나눌 수 있다.

① 심리 활동 동사

무의지 심리 활동 동사에는 “격분하다, 경시되다, 경악하다, 고려되다, 고양되다, 골나다, 괄목하다, 기죽다, 낙심하다, 내키다, 노발대발하다, 노심초사하다, 달뜨다, 대노하다, 도외시되다, 등한시되다” 등이 있다.

- 군중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격분하지 않을 수 있지?
- 한때 우리의 전통 문화가 경시된 적이 있다.
- 경제성만 따지고 농작물과 목장의 폐해는 고려되지 않나요?
- 민중 의식이 매우 고양되었다.
- 우리의 경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루었다.

② 변화 동사

변화 동사는 사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변화 동사는 사물의 운동은 있으나 그 활동 과정이 확연히 감지되지 않는 동사들이다. 여기에는 “가물다, 가시다, 가열되다, 가중되다, 간소화되다, 감퇴되다, 결핍다, 경화되다, 고사하다, 구체화되다, 규격화되다, 기진맥진하다, 긴장되다, 기진하다, 낫다, 노골화되다, 녹슬다, 늙다,